



'공공공사 발주 제도 및 대금 지급 시스템 개선' 토론회 주관

연구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김희국, 나성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연구원이 주관하는 '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 시스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공공공사 발주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발주처에서 기능 인력에 이르는 생산 구조 내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대금 지급 시스템 구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연구원의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이 제1주제로 '공공 건설공사 발주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강운산 연구위원이 제2주제로 '건설산업 내 합리적 대금 지급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이 사회를 맡고,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 건설업체, 학계, 노동계, 언론계 등의 건설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다.

'차기 정부 건설·주택 정책 과제' 등 3개 보고서 발간

연구원은 지난달 말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한 시도회장 워크숍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은 연구원이 건설공제 조합의 지원으로 약 9개월 간 추진해 온 연구 과제로서 건설산업의 당면 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미션을 담고 있다. 한편, 연구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과제'와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 과제', 그리고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등 3개 보고서를 이달 초에 발간할 예정이다.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세미나 개최 예정

연구원은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한국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세미나를 이달 13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의 메가 트렌드 및 사회적 니즈의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과감한 정책·제도 혁신과 시장의 선진화, 그리고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연구원의 박용석 연구위원이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니즈 변화와 과제'를 발표하고, 이어 김현아 연구위원이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 산업의 새로운 5대 미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포스코경영연구소 김준한 고문의 사회로 국토해양부, 건설업체, 학계, 언론계, 연구계 등의 건설 및 사회·경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기획팀(02-3441-0701, 0896)으로 문의하거나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를 참조하면 된다. CERIK